

光 산업, 이제 빛고을 땀땀다

10 대담-광산업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잠재시장 무궁무진... 신기술만이 수출경쟁력 유지



전영복

광주시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의 성패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외에도 관련업체들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로 한다.

■ 일시 : 17일 오전 11시
■ 장소 : 한국광산업진흥회
■ 대담 : 전영복(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추안구(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장·오이솔투신 대표)

— 향후 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 및 생산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영복=광산업 관련인력 양성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전남대를 주축으로 13개 교육기관에서 인력양성 시스템을 운용중입니다.

향후 해외 우수기술연구소, 대학 등 연구과정을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완해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추안구=다양한 종류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현장의 요구수준을 긴밀하게 해야 하며, 고급인력의 역외유출을 막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경영안정을 위해 설비투자자금·운전자금 확보는 절대적입니다.

▲추=업체의 자금수요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한 중소기업·벤처업체이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물론 담보부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추=광주지역의 광산업 관련 제품매출의 85%는 내수가 아닌 수출드라이브에 해외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강해, 향후 광산업체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은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뿐입니다.

▲추=지난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광산업체 자금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자금으로, 36개 업체에 395억8천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투자펀드를 통해 8개 업체에 37억5천만원의 지원했다. 모두 44개 업체에 433억3천200만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특히 진흥회에서는 광산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의 상환금리 인하를 위해 대정부정책 건의활동을 전개, 당초 7.0%까지 치솟았던 금리를 4.4%까지 내렸습니다.

물론 광주지역 광산업체의 매출이 증가, 연간매출 200억~300억원 규모의 업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원은 미흡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업공개와 코스닥 상장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지원기관과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말까지 광주지역에만 273개의 광관련업체들이 가동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 업체가 내실

▲추=시장개척은 무엇보다 시장현황 및 경쟁구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목표고객 선정과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유지도 힘을 받아야 해요. 특히 광산업의 경우 주시장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동안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참가 등 간접지원과 해외거점 전문가 혹은 전문회사를 통한 해외시장 프로그래밍이 가동되고 있는 점은 괄목할 만합니다. 이제는 초기지원 프로그램보다 개선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개척보다는 실효성을 중시한 시장현황 파악과 계획적인 잠재고객 개척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종합적으로 수급·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혹은 전문기업 중심의 활동지원 프로젝트가 시급히 가동돼야 합니다.

— 국내의 시장 흐름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추=최근의 국제시장을 점검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광산업은 미국·일본·대만 등의 기술과 중국의 가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조업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같은 주변환경을 극복하기 위



추안구

“광제품 시장 급속 팽창 운영 자금·판로 개척 등 지원 프로젝트 가동 시급”

“대학 등 연구과정 확대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문인력 양성 주력할 것”

“전문인력 양성 주력할 것”

美·日 기술과 中 저가경쟁에 샌드위치

정부·지자체·기업 협력 위기 돌파해야

있는 매출을 창출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추=광주지역의 광산업 관련 제품매출의 85%는 내수가 아닌 수출드라이브에 해외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강해, 향후 광산업체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은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뿐입니다.

이를 위해 진흥회는 매년 9월 국제광산업전시회를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을 수출계약 체결과 해외에서 개최되는 광산업 전문전시회에 공동참가단을 구성해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7년여 동안 매출계약 체결실적은 국제광산업전시회에서 2천890억원, 해외전시회 공동관구상 등 참가지원을 통해 218억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450억원, 해외마케팅 지원기금을 통해 1천42억원 등 모두 4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서는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에 게을리하면 안됩니다. 국제적인 기술·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무엇보다 광산업체의 자구노력이 절실합니다.

▲추=향후 광산업 전망은 밝습니다. KT·하나로통신 등에서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450만 세대에 보급되는 FTTH(태네 광가입자망) 서비스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2조원대 규모로 예측되는 내수시장이 곧 열립니다.

▲추=향후 광산업 전망은 밝습니다. KT·하나로통신 등에서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450만 세대에 보급되는 FTTH(태네 광가입자망) 서비스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2조원대 규모로 예측되는 내수시장이 곧 열립니다.

*/정리=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사진=최한혜기자 choi@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무등공인중개사
건물투자
*보통급 38억 월세 3,000만원(4억 최고상권) 용자 12억 매가 86억

정우부동산
건물급매
*대지 260평 건평 9000평 지하1층 지상3층 매가 9억8천 보종급 1억 2천만원

첨단월세공인중개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특직실버시설

금보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4차시 생활권 내 2차시 전입민족 1500평 1500평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 합본(광주·주요·정당·행정·행정)
지번도 책 판매중

현대공인중개사
전원주택용지 24필지 선착순 분양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단체 분양 환영)